

## ● 전기협회, 제19차 KEPIC 운영협의회 열어

- 올해 23종 신규표준 개발완료, 88종 개정
- 2013년도 사업비 분담 확정...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6일 한국전력공사 본관에서 KEPIC 운영협의회 참여기관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KEPIC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8차 KEPIC 운영협의회 결과와 KEPIC 주요업무 추진현황(6단계 2차년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올해 KEPIC 추록 개발은 총 44종의 신규표준 개발 중 23종(1,681 페이지)이 완료되었으며, KEPIC 2010년판 관리대상 352종 중 6개 기술 분야 88종(4,061 페이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2013년도 KEPIC 사업비 분담(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KEPIC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의 중기(6단계 : 2011~2015년) 소요예산 조달 계획에 따라 참여기관별 분담금액이 확정됐다.

한편, 전기협회는 2013년 KEPIC 주요 사업으로 ▲KEPIC 개발 및 개선보완 ▲전력산업계 KEPIC 적용 활성화 ▲KEPIC 국제화 체제구축 및 해외적용 기반 마련 ▲KEPIC 웹기반 운영체계 구축 및 확대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 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 기술기준 선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場 마련
- KEC 제정, 상세 규정·지침 개발 등 3차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2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정부, 산·학·연 관계자 등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명철)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결과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 현황, 2012년도 기술기준/판단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제·개정(안)은 기술기준 3개 조항, 판단기준 82개 조항을 상정하였고, ▲기술기준 6개조 6건, 판단기준 44개조 48건 등을 포함한 의견수렴 ▲전기협회 WG 운영 ▲기술검토 ▲전문·적합성평가위원회(8회), 분과위원회(32회) 등의 심의 단계 등을 거쳐 추진됐다.

상정된 제·개정(안)은 지난달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고시 및 공고(지식경제부)를 통해 전력산업계에 적용, 활용된다. 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4단계(2011~2015년) 3차년도 사업계획(안)이 심의, 의결됐으며, 중점 사업으로 △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선진화 △한국전기규정(KEC)제정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상세 규정·지침 개발 △기술기준 적용활성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조정·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 기구로서, 산·학·연·관에서 총 22개 위원회, 45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서 전기설비의 인·허가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용, 적용되고 있다.
- 한국전기규정(KEC) 대한전기협회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술진보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국제수준의 민간자율규정인 KEC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전기협회, 인사

〈승격〉 ▲KEPIC처 김종해(1직급, 처장) ▲기획홍보처 김명균(3직급, 기획행정팀장) ▲기술처 서정호(3직급) ▲KEPIC처 이상윤(3직급) ▲기술기준처 신대성(3직급) ▲KEPIC처 김유철(4직급) ▲KEPIC처 주현재(5직급) 이상 7명, 2013. 1. 1일부

## ● 전기협회, 2013년도 표준품셈 발간

전기협회에서 발간된 2013년판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은 발주기관과 시행처 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였으며, 현실화된 문구정리, 용어·적용기준 정비,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1개 조항의 품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형강(앵글형) 철탑시공', '지중저압 접속함 점검 플 박스(Pull Box)' 등 63개 개정 조항이 반영됐다.

표준품셈은 전기부문 ▲제1장(적용기준) ▲제2장(송전설비공사) ▲제3장(변전설비공사) ▲제4장(배전설비공사) ▲제5장(내선설비공사) ▲제6장(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공사) ▲제7장(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 ▲제8장(항공등화 설비공사)을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품셈(제정 14건, 개정 46건)과 함께 권말부록으로 2013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요령 및 단가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정기준 등을 한 권으로 엮어 발간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전담 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신기술, 신공법,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품의 적기 반영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EA

- 규 격 : 국판(25절) / 하드커버
- 문 의 : 홍보팀
- 정 가 : 40,000원
- 전화 : 02-3393-7694 / 팩스 : 02-3393-7699
- 이메일 : yjh1112@electricity.or.kr

